

# 프랑스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전망<sup>1)</sup>

한 문 희  
(서울대학교)

Han, Mun-Hi. (2010). The present and the future prospect of French educa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3, 180-194.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s of French education in Korea and proposes the future prospect by analysing the causes of a change. The number of students who choose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FFL) subject decreased in the secondary school education for years. One reason is that the French language is not included as one of the second foreign language subjects in the baccalaureate exam. In the case of secondary school education, there is not much we can do about it unless the government changes the policy about foreign language subjects. At university level education, I propose that students should go further with their education, not only to the French territories, but also to French speaking countries, particularly Africa. Then, we may plan to change a curriculum to include the African culture, for instance. According to students' specific objectives, the department can offer various curricula; the programs and teaching methods of FFL should be defined according to learners' goals. The collaboration with the Embassy of France in Korea is also necessary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Key Words:** French education, second foreign language, curriculum of French department, special objective, interdisciplinary major

## I. 서론

오늘날엔 제2외국어, 특히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과 고등학교의 교수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 자체도 별로 새롭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 상황이 이 정도까지 비관적으로 되었는가?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현재 세계화라는 명목은 미국화, 영어화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어의 영향력도 전 세계적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권 내 프랑스어 교육의 현 실태를 자세히 점검해보고, 변화가 이루어진 배경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앞으로의 대응 전략 방

---

1) 2010년 6월 12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되었던 프랑스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프랑스어 교육이 도입된 역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제2외국어 교육이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기까지의 상황을 교육부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교육 정책적 원인을 진단한다.

한편 우리 일부 교수자들의 태만 내지 방임한 자세도 이러한 결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개선할 점 및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토록 어둡기만 한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명쾌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더라도, 이 시대 제2외국어 교수자들이 취해야 할 경직되지 않은 안목과 보다 열린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 나름대로 논하려 한다.

## II. 프랑스어 교육의 역사

한국에서 프랑스어 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895년이다. 조선정부는 강화도 조약으로 제일 먼저 일본에게 개항한 후, 차례차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에 뒤를 이어 1886년 프랑스와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외교, 통상 등의 국제 관계가 빈번해지자 국민들의 외국어 교육이 시급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호통상조약 체결 9년 후인 1895년 10월에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최초의 프랑스어 학교인 *Ecole de la langue française*를 개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식적인 프랑스어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년 후엔 프랑스어 교육 담당교사로 Emile Martel 씨를 초빙하여 본격적인 원어민 수업을 실시하였다(이동우, 1982).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1836년에 프랑스 선교사인 Maubant, 그 다음해엔 Imbert, Chastan의 세 신부가 중국으로부터 비밀리에 들어와 천주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국인들에게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이들 파리 외방 선교회원들의 부지런한 연구에 힘입어 1874년에 Ch. Dallet의 『조선교회사』, 1880년에 최초의 한불사전인 『한불사전』, 그리고 최초의 문법서인 『한어문전』이 1881년에 Ridet 신부에 의해 출간되었다(정기수, 1987:257).

1906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일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으로 학제를 모두 개편하였다. 그리고 외국어 학교를 독립 운영하게 하면서 교육정도를 낮추기 위해 수업 년 한을 단축시켰다. 그 후 1910년 한일합방으로 국권을 상실하게 된 우리나라는 1911년 식민지 교육체제가 구축되어 외국어 학교가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일본어와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의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926년에 창립된 경성제국대학에서는 영어, 독어, 러시아어등과 함께 프랑스어를 선택과목으로 가르쳤다. 대학 내 불어불문학과 창설은 1946년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1948년 성균관대, 1952년 효성여대, 1954년 한국외국어대

학, 1957년 이화여대, 1963년 고려대, 1965년 경희대 등으로 이어져 1983년에는 58개로 늘어났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민대, 동국대, 제주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국 4년제 대학교에 불어불문학과가 설립되었다. 물론 이것은 1959년 서울대 사범대 외국어교육과에서 불어전공으로 처음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 것부터 1983년 여러 사범대학에 설치된 불어교육과 까지를 포함한 집계 상황이다.

대학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육이 실시된 것은 훨씬 후에 이루어졌으며 1952년 대구 효성여고와 서울의 계성여고가 처음이다. 이처럼 여자고등학교를 위주로 1959년 이화여고, 진명여고, 성심여고, 숙명여고에 프랑스어가 외국어 교과목으로 도입되었으며, 1963년에야 비로서 프랑스어가 고등학교 공식 교육과정에 편입된 것이다. 이로써 제2외국어로 독일어와 중국어만이 있던 과정에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추가된 셈이다. 1974년에는 일본어, 1992년에 러시아어, 1997년에는 아랍어가 가세함에 따라 현재 7개의 외국어가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1965년에 문화협정조약을 조인하고 1968년에 비준하였다. 그 당시 문교부 당국은 독일어 교육을 억제하면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적극 장려했으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프랑스어 교사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독일어 선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 Ⅲ. 제2 외국어 교육의 위기

이제 제2외국어 교육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와 배경이 되는 원인을 나누어 살펴보자.

#### 1. 수업 단위 수의 변화

중등교육에서 제2외국어의 수업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변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82년 1월부터 실시된 인간중심 교육의 제4차 교육과정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의 수업단위가 10~12단위를 유지하였으나, 1987년 7월부터 시작된 통합중심교육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10단위로 감소하였다.

1992년 10월부터 시행된 제6차 교육과정은 21세기 미래상을 위한 교육으로, 제2외국어가 <제2외국어 I>, <제2외국어 II>로 나누어지면서 각각 6단위로 총 12단위가 되었다. 이때는 일반계 고등학교 대부분이 10~12 단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1998년 학생중심교육을 표방하며 실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과목을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새롭게 편제하였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나누어 <제2외국어 I>은 6단위로 일반선택과목이며, <제2외국어 II>도 마찬가지로 6단위이지만 심화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실제로 53개 과목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연히 많은 학교에서 <제2외국어>의 선택을 기피하였다.

근래 제2외국어 교과서 신청 상황을 아래 표1에서 살펴보면, <제2외국어 II>가 1년 새 10여만 명이나 감소하였으며, <제2외국어 II>는 <제2외국어 I>의 1/3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이것으로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고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제2외국어 I> 까지 학습하던 것에 비해 오늘날엔 학습자 수가 현격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제2외국어 교과서 신청 상황 (교육부 자료)		
	2008년	2010년
제2외국어 I	671,205 명	605,167명
제2외국어 II	331,366 명	201,105명

## 2. 대입수능제도의 변화

얼마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본받으라고 언급했던 우리나라의 교육 열은 대단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는 전 국민의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나 수험생이나 그 학부모들은 대학 입학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신념으로 고득점 전략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고 총력을 기울인다. 제2외국어 선택 여부는 바로 이 과목이 대학 입학 수능능력평가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제7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대입수능제도에서는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이 되므로 일선 학교들은 제2외국어를 가능한 한 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외시키려는 경향이다. 즉 아래와 같이 제2외국어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 수는 많이 증가하였다.

표 2

2008년		2010년	
I, II	145개교/2190개교	I	116개교/2225개교
		II	948개교/2225개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 수업이 2학년으로 늦춰진 것도 영향을 크게 끼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는 사실상 대학입시 준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이므로, 대입전형과 직접 관계가 없는 교과목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홀대 받는 것이 당연한 실정이다. 현재 제2외국어는 대입을 위한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 과목이

대학입시에 채택되었다 해도 전 수험생에게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어문계만 2~4점 반영하는 정도다. 이 점수는 수능 제2외국어 만점인 45점의 5~10%에 해당하는 수치로 결국 학생들 간의 제2외국어 성적 차이가 대학입시에서 당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대입 전체 정원의 약 1/3 이 선발되는 수시전형에서도 제2외국어 성적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수시에서 제2외국어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는 오직 1개교<sup>2)</sup>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수시나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대학들은 전 교과 반영이거나 어문계열에서만 반영하고 있다. 다음표 3의 2009년 통계를 참고하면 대학입시에서 제2외국어가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3

1학기 수시모집	13개교 /63개교	일부(외국어 포함)6개교/63개교
2학기 수시모집	29개교/180개교	16개교/180개교
정시모집	55개교/195개교	27개교/195개교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중학교의 재량활동으로 생활외국어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이 과목이 한문, 컴퓨터와 복수 편성된 상황이어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제2외국어만을 단수로 편성한 중학교의 수는 10개교 미만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 95% 이상이 일본어와 중국어이고, 유럽어는 합해도 고작 10개교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 IV. 프랑스어 교육 수요의 급감

이상과 같이 제2외국어 전체의 위기가 팽배한 현실에서, 프랑스어 교과목의 교육위기는 한층 더 심각하다. 아래 표 4의 교육통계연보를 참고하면, 1995년 프랑스어의 선택비율이 제2외국어 가운데서 25.10%를 차지하였으나, 점점 감소하여, 2009년 현재에는 4.2%밖에 되지 않는다. 독일어도 역시 42.39%에서 4.0%까지 감소하였으나, 이에 반해서 중국어는 4.95%에서 27.2%가 되었고, 일본어는 26.68%였던 것이 63.3%로 현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수가 1,163,893명에서 2009년에는 480,062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를 택한 학생 수는 약 19,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2) 카톨릭 대학교임.

표 4

## 제2외국어 선택비율

	1995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9년
독일어	42.39	38.12	30.22	16.19	10.32	4.0
중국어	4.95	8.33	10.50	17.02	28.15	27.2
스페인어	0.87	1.65	1.39	1.14	1.24	0.9
프랑스어	25.10	23.17	18.80	10.92	8.53	4.2
일본어	26.68	28.73	39.10	54.72	51.38	63.3
러시아어					0.38	0.2
아랍어					0	0
전체학생	1,163,893	990,834	805,750	670,723	489,337	480,062

(교육부통계자료)

2008, 2009년도의 제2외국어 선택 학교 수를 비교해 보아도 일본어는 2115개교에서 2168개교이고, 중국어는 1386개교에서 1459개교로 증가하였지만, 프랑스어는 298개교에서 281개교로 줄었다.

표 5

## 제2외국어 선택 학교수

	2008년	2009년
	전체(일반교)	전체(일반교)
프랑스어	298(280)	281(263)
독일어	323(298)	284(260)
일본어	2,115(2,081)	2,168(2,122)
중국어	1,386(1,368)	1,459(1,434)
러시아어	12(9)	10(9)
아랍어	0	0
스페인어	자료없음	38
전체학교	2,190(1,493)	2,225(1,534)

(교육부통계자료)

또 일반계고 담당과목별 교원 수를 비교해 보아도 프랑스어 교사 수는 2007년부터 해마다 감소하여 중국어 교사 수의 1/6정도, 일본어 교사 수의 1/17에 해당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표 6

## 일반계고 제2외국어 담당과목별 교원 수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일반교)	전체(일반교)	전체(일반교)
프랑스어	193(178)	169(156)	164(151)
독일어	219(203)	185(168)	163(147)
중국어	836(796)	904(866)	1082(919)

일본어	1,949(1,903)	1,992(1,952)	2,765(1,979)
러시아어	10(6)	9(5)	13(5)
스페인어			32
아랍어	0	0	0

(교육부 통계자료)

이번에는 표 7에 나타나있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의 선택 비율을 살펴보자.

**표 7**  
제2외국어 선택과목별 학생 수

과목	2009년		2010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아랍어I	29,278	29.4	51,141	42.3
일본어I	27,465	27.5	25,630	21.2
한문	16,908	17	16,745	13.9
중국어I	13,445	13.5	12,666	10.5
프랑스어I	4,296	4.3	4,172	3.5
스페인어I	2,530	2.5	3,685	3.1
독일어I	3,853	3.9	3,503	2.9
러시아어I	1,918	1.9	3,275	2.7

(교육부 통계자료)

위의 표 7을 보면 기이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과정 중 제2외국어는 프랑스어를 비롯하여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7종류의 언어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표 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랍어는 어디에서도 정규 교과목으로 선택하여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학부모들의 그릇된 편견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아랍어를 선택하여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가 2009년 29.4%에서 2010년엔 42.3%나 되었다. 바로 1년 사이에 놀라운 증가세를 보여서 그 응시 인원도 51,141명에 달한다.

이렇게 수능에서 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 응시 과목 간 불균형을 이루는 가장 큰 원인은 아랍어의 표준 점수는 100점에 달하고 독일어를 비롯한 프랑스어, 일본어, 한문은 69점밖에 되지 않아서 그 차이가 무려 31점이나 되기 때문이다. 아랍어 표준점수 만점을 받은 학생 수가 2009년 수능에서 162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649명이나 되었다. 현재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 아랍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고 있다. 교과부측의 입장은 실제 대학들이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을 반영할 때는 표준점수가 아닌 백분위를 적용하므로 선택과목 간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학부모 및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수능에서 유리한 과목만을 찾아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경향 때문으로, 고교 2년부터 특기적성을 살려 다양한 심화선택과목을 학습시킨다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이 완전히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의 목적과 다른 이와 같은 편중현상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V. 개선방안

지금까지 제2외국어의 위기, 그 중에서도 프랑스어 교육 수요의 감소로 이어진 원인을 주로 교육과정의 개편,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제도의 측면에서 통계자료와 함께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를 미국화와 동일시하는 그릇된 안목에서 영어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안목을 갖게 하고, 또 프랑스의 관용주의(tolérance), 자유(liberté), 평등(égalité), 박애(fraternité) 사상, 두 사람만 모여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토론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감성 문화 등과 같이 다양한 감각과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나친 수요자 중심 논리로 일부 외국어 과목에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폭넓은 외국어교육은 나아가 외교 안보의 차원에서도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그들과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가번영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게다가 다양한 외국어 능통자가 많이 배출되면 통, 번역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이 산업은 바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문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에 접어들 것이다. 이에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시급하며, 우리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이를 제대로 외국에 알리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21세기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복합 문화 콘텐츠 개발 분야에도 다양한 외국어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외교 용어의 대부분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고, 유엔 사무국등 대부분의 유엔 조직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실무 언어이기도 하므로 프랑스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프랑스어는 성, 수의 구분에 따라 명사, 형용사, 동사가 변화하므로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OIF<sup>3)</sup>에 따르면 프랑스어는 32개국의 공용어이며, 전 세계 2억 명이 구사하는 언어이다. 또 영어와 함께 5대륙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언어이기도 하다. 유럽, 아프리카, 일부 아랍권 국가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다른 언어들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3) Organisation Internationale Francophonie :국제프랑스어문화권 기구



다음은 프랑스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중등학교 차원과 대학교 차원을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 1. 중등학교 차원

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이 제7차 교육개정안, 2007개정안, 2009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균형 있는 제2외국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선택이 어느 한 과목으로 편중화, 획일화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각 학교마다 동양어인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중의 한 과목과 서양어인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의 한 과목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따르는 지방자치 단체나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우대하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희망자가 적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는 시도 별로 특별학교를 지정하여 설치하고 감독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대입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제2외국어 I>을 학습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2외국어 II>를 선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외국어 영역에 영어만을 소속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보다 폭을 넓혀 제2외국어도 함께 외국어 영역에 포함시킬 것을 당국에 요청한다. 그렇게 되면 시험에서 선택하여 응시하는 학생 수도 증가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제2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2. 대학교 차원

대학에서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현재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또 사범대학에서 불어교육과의 전공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서도 실제로 프랑스어과 교사 임용시험이 전국적으로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들의 교사 취업률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대학의 교육이 역사와 세계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면서 미래를 탐구하고 사상과 진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학생 취업에만 축소시킬 수 없다고 하겠지만, 당국이 취업과 연결하여 대학 내 학과 구조조정을 권고하고 대학이 실시하는 참담한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별 명칭을 지역학, 문화관광 등으로 변경한 곳이 많다.<sup>4)</sup>

4) 경성대(프랑스지역학과), 서강대(프랑스 문화학 전공), 건국대(커뮤니케이션학과), 목원대(프랑스 문화관광학과), 동아대(프랑스 문화학과) 등.

사실 학과에서도 프랑스어문학 전공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프랑스의 문화, 관광 등으로 영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프랑스라는 나라를 뛰어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제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개개인의 취향과 욕구에 맞춰 졸업 후 진로방향에 따라 각자에게 커리어 로드맵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유럽 지역학자, 유럽 통상전문가 등을 원한다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등과 연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예사, 문화콘텐츠 개발자, 번역전문가 같으면 역사학과, 국어국문학과 등과, 디스플레이어, 학예사는 미술학과와, 파티 플래너, 소믈리에, 요리평론가는 식품영양학과 등과 함께 그 각각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적절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과정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면 현실적으로 합당한 강의 담당자를 공급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같은 단과대학 내의 다른 학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대학의 여러 전공으로 차츰 연계과정을 넓혀 간다면 어려운 점도 단계적으로 극복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에서 주관하는 유럽지역학 연계전공 교육과정이다.

표 8

학년	1학기	2학기
2	국제관계사개론 서양정치사상 1 프랑스문화강독 서양근대사 1 (르네상스에서 프랑스혁명까지)	국제정치사상 서양정치사상 2 서구정치론 유럽지리 게르만어권의 신화와 민담 영국사 서양근대사 2 (19세기의 역사)
	국제정치경제론 유럽지역연구:유럽연합과 서유럽정당론 EU 와 독일어권 문화 독일사 서양중세사	세계외교사 비교연방제와 비교국가 서양사학사 프랑스사
4	비교국제사회론 유럽문화의 이해 프랑스비평과 문화이론 서양사특강	*구성된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학생의 원대학 소속대학 이외 대학개설 유럽지역학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수강 사회과학대학외교학과, 정치학과, 인류학과, 지리학과/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서양사학과

이와 같은 연계전공의 제안으로 프랑스어 관련학과의 강의 지평이 넓어짐은 물론, 학생들의 관심과 안목의 폭도 단순히 어문학 전공에서 경제사회, 외교, 역사, 문화예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다. 오늘날 화두로 떠오른 학문 간의 융합, 통섭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진로는 바람직하고 권장해야 할 시각이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프랑스어권 인들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교육이야 한국어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들의 학습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이 프랑스어 체계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씨앗을 뿌린다고나 할까, 우리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제안한다. 즉 프랑스어 관련학과 학생들이 대학 인근 지역 중학교에 가서 재량활동 시간에 프랑스 문화에 대해 수업을 한다든지, 필요한 수업보조 자료를 지원하며 학업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중학생인 이들이 장차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했을 때 프랑스어에 대한 학습 욕구나 전공 선택에 유리한 경험으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바람에서다. 실제로 모 대학 인근의 부속여중, C중, 국립 맹학교에서 4~5년 전부터 불어교육과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고 고무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인천 교육청의 후원 아래, 방학 중 인천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량활동 차원의 제2외국어 소수 신청자를 위한 수업은 학기 중 대세에 밀려 제대로 교육 받을 권리를 잃은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한 대단히 바람직한 배려의 처사다. 인천에서 시작된 이러한 훌륭한 교육행사가 전국의 모든 교육청으로 널리 확산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서울대 불어문화권 연구소, 경희대 아프리카 연구소, 배재대의 북아프리카 연구소, 한국외대의 아프리카 연구소가 설립되어 아프리카를 비롯한 불어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더 나아가 이들 연구소를 토대로 한 아프리카 지역의 역사, 문화 연구를 통한 새로운 교과목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9년 3월에 한전 컨소시엄으로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수주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바 있는 바, 이에 원전 수명 60년 동안의 운전, 기기 교체 등에 참여할 비용까지 합치면 400억 달러, 약 47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고 한다.

이에 힘입어 정부에서는 2010년을 아프리카 협력 강화의 해로 선포하고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3월에는 요르단과 연구교육용 원자로(JRTR, 5MW) 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2012년에는 아프리카 정부의 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Marcoux R. <sup>5)</sup>의 집계에 따르면 공식적인 프랑스어권의 인구는 아래 표9

5) Marcoux, R. (2008). Le poids démographique des francophones: passé, présent et perspectives. *L'avenir du français*, 151-161.

에서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의 비율이 40년 사이에 17%가량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그 증가비율은 계속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1960년	2000년	2050년
아프리카	43,8%	62,0%	80,3%
아메리카	14,9%	12,7%	7,7%
유럽	41,2%	25,2%	12,0%
대양주	0,1%	0,1%	0,1%
프랑스어권인구(명)	146,838,000	306,692,000	677,203,000
세계인구(명)	3,021,475,000	6,070,581,000	8,918,724,000

이 통계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해서도 프랑스어 관련학과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아프리카는 자원의 보고로 이제 팽창하는 세계 경제가 희귀자원을 포함한 많은 광물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어 아프리카 대륙이 열강의 관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 VI. 결론

세계에서 프랑스어가 차지하는 언어적 비중은 프랑스라는 나라 하나에 달려 있는데,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어권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영어나 스페인어가 본국의 영토 밖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프랑스어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식민지의 역사를 고려해도 프랑스가 스페인에 비해 짧기는 하지만, 본토 대부분의 인구가 식민지 영토로 진정 이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놓여있는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요한 원자재 공급처이기는 해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가 유럽 연합에 통합된 현실도 상대국에 대해 점점 프랑스의 행동과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도 프랑스가 소위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프랑스어의 위력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세계가 영어권에 의해 독점된 것 같으나, 지리적으로나 상황에 따라, 또는 잠재적으로 방대한 영역에서 프랑스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이 소통되고 있다. 특히 다중언어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언어정책에 따라서도 프랑스어의 위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급속히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질적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된 프랑스를 경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프랑스어 교

육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의 프랑스어권 나라들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한 프랑스어의 확대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올해 아프리카 독립 50주년을 맞이하여 7월 14일 상젤리제에서 벌어진 프랑스혁명 기념 일 행사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13개국 군대를 초대하여 사열하게 한 것은 이들과의 협력 우호 증진을 위해서라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와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일방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하는 접근이 아니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배려와 정성으로 인간적인 도움을 준다면 서구 열강이나 중국 같은 경쟁국들보다 우리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 유지에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프랑스어를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칸 국제 영화제 후 한국영화의 과급력으로 현재 문학 한류가 일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지 출판인들이 다채로운 메뉴로 선보이고 있는 한국문학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영화인들이 프랑스를 발판으로 세계화의 꿈을 이루었지만, 이제 문학에서도 그러할 때가 올 것이다. 한국문학이 프랑스어로 번역되면 당연히 유럽 다른 나라에도 소개되기 쉽다. 유려한 번역가를 기르기 위해서도 프랑스어의 교육은 강조되어야 하며, 이제는 교수자들도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는 안이한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솔선수범하여 다방면적으로 침체된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논의 중인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점수 개편, 수능시험 횟수와 유효기간 변경, 과목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능체제 개편안은 새로운 시각에서 멀리 바라보아 이루어져야 한다. 제2외국어 교육 종사자들은 지난 해 12월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어와 함께 외국어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제2외국어를 기술, 가정, 한문, 교양을 한데 묶어 생활 교양영역으로 개편한 것은 앞으로 수능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제외시키려는 전조의 일부 조치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교육 당국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양한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과 같이 제2외국어 교육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루빨리 외국어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 참고문헌

- 송정희, 장한업, 한민주, & 한상현. (1999). *불어교육론*. 서울: 하우.
- 이동우. (1982). *Précis de didactique du français contemporain*. 서울: 학문사.
- 정기수. (1987). 한국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의 변천. *교회사 연구*, 5, 253-275.
- 국제 심포지움. (2009). *프랑스어권의 공연예술*, 제3회 프랑스학 공동학술대회.
- Conseil de l'Europe. (2005).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Didier.
- Cuq, J. P. (2008). L'enseignement du français langue seconde et langue étrangère, In J. Maurais & P. Dumont (Eds.), *L'avenir du français*, éditions des archives contemporaines(pp. 119-128).
- Germain, C. (1993). *Evolution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5000ans d'histoire*, CLE international.
- Lee, S. H. (2009). "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dans l'enseignement secondaire en Corée du Sud", *Le français dans l'enseignement secondaire en Asie de l'Est -Quelle plurilinguisme au 21e siècle?* 와세다대 학술대회.
- Marcoux, R. (2008). Le poids démographique des francophones: passé, présent et perspectives, In J. Maurais & P. Dumont (Eds.), *L'avenir du français*, éditions des archives contemporaines(pp. 151-158).
- Qotb, H. (2009). *Vers une didactique du français sur objectifs spécifiques médié par internet*, Lettres & Langues. Retrieved from [www.le-fos.com](http://www.le-fos.com)
- Rapport a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sur l'avenir de l'enseignement français à l'étranger. (2008). Paris, le 3 juillet.
- Vigner, G. (2001). *Enseigner le français comme langue seconde*, CLE international.
- Weissberg, D. (2008). L'avenir du français en Asie. In J. Maurais & P. Dumont (Eds.), *L'avenir du français*, éditions des archives contemporaines(pp. 183-186).

한문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6133

이메일: mhhan@snu.ac.kr

Received on July 28, 2010

Reviewed on Oct 22,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 18, 2010

Accepted on Dec 3, 2010